



1970년부터 2021년까지 테러와 테러로 인한 사망사건 수는 2011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다가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테러 수와 사망사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에는 중동에서 테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관계가 있다.

중동 국가 중 특히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했다.

이 시기에 중동 국가들에서 많은 테러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혼잡한 정세가 있었다.

찾아보니 이 시기는 중동의 봄이라고 불리우는 시위 운동 및 혁명이 중동에서 벌어졌다. 반정부 시위들이 일어났으며 시위뿐만 아니라 무력 충돌까지 발생해 테러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